



23일 미8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제2회 한미 부사관 역량 강화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 제공

# 내년부터 전투기량 '최고 부사관' 선발키로 논의

**육군, 제2회 한미 부사관 심포지엄  
美 육군 최우수 전사 경연대회 참고  
상호 역량 강화 구체적 방안 모색**

한미 육군 부사관단이 내년부터 최고의 전투기량을 갖춘 부사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양국 육군 부사관단은 23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회 한미 부사관 역량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상호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으며 한미 육군 부사관 15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미 육군의 최우수 전사 경연

대회(BWC·Best Warrior Competition) 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한미 최우수 부사관 선발 방안 토의, 미8군 교육훈련센터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양국 부사관단은 BWC를 참고해 내년부터 최고의 전투기량을 갖춘 부사관을 선발하기로 합의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은 이 행사는 양국

부사관단의 역량 강화와 우호증진을 위해 양국이 번갈아가며 주관한다. 올해는 미 육군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김채식 육군주임원사는 "앞으로도 한미 육군 부사관단이 긴밀히 교류·협력해 교육 훈련과 조직문화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내일이 더 강하고 좋은 육군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최성목(맨 왼쪽) 해군1함대사령관이 지난 20일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해군1함대·동해시·LS전선 동해공장의 전역 장병 취업지원과 동해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심규언(가운데) 동해시장, 주완섭 LS전선 전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김병훈 상사

## 해군1함대-동해시·LS전선 동해공장 전역 장병 취업지원 MOU

해군1함대는 지난 20일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동해시·LS전선 동해공장과 전역 장병들의 안정적 취업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성목 1함대사령관, 심규언 동해시장, 주완섭 LS전선 전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민·관·군이 함께 협력하는 '동해형 일자리 상생모델'을 완성했다. 1함대는 LS전선 동해공장이 원하는 인재로 전역하는 부사관과 병을 추천해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군 경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또한 동해시는 전역 장병의 취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함대 하상수(중령) 인사참모는 "이번 협약 체결로 해군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전역 후 새 인생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장병들의 군 복무가 사회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수 기자

# 화재 피해 최소화 위해 유기적 공조체계 강화

## 공군17전비, 군·관 합동 소방훈련

공군17전투비행단(17전비)은 지난 20일 부대 내 장병 거주시설에서 청주동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전개했다. 훈련은 장병 밀집 거주 시설에서 화재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로 화재를 제압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동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17전비 소방구조중대·항의대대·군사경찰대대를 비롯해 청주동부소방서 소방관 등 60여 명과 인명구조 소방차, 소화약제 운반차 등 차량과 장비가 동원됐다.

장병 거주 시설의 한 숙소에서 장병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훈련은 시작됐다. 이어 숙소 관리자가 화재 신고를 하고 대피 방송을 했다. 상황을 전파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구조중대는 빠른 현장 도착과 청주동부소방서의 협조를 바탕으로 인명구조와 화재탈출 등 실제 화재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훈련은 밀집형 고층 주거시설에 맞춰 인명구조 사다리차를 이용한 고층



공군17전투비행단 소방구조중대원들이 지난 20일 청주동부소방서 소방관과 함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호준 상사

건물 대피 훈련, 에어매트 및 완강기 등을 사용하는 비상탈출 훈련 등 건물 거주자가 직접 참여해 화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피하는 맞춤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을 주관한 한진수(대령·진) 기지방

호전대장은 "훈련을 통해 테러 및 사고 발생 시 관군 합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어떠한 화재 상황에서도 인명손실을 제로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 해군군수사 정비창 '생명 나눔' 헌혈증 508장 기부

해군군수사령부 정비창은 23일 "정비창 주인수(중령) 운영처장과 안용태 주임원사가 최근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을 방문, 헌혈증 508장을 김동수 경남혈액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수사 장병들은 지난 2주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수급난 해소에 동참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이웃 돕

기를 위해 헌혈증을 모았다.

주 운영처장은 "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잘 사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비창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신뢰받는 선진해군이 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수 기자



해군군수사령부 정비창의 헌혈증 전달식에서 주인수(중령·왼쪽) 운영처장, 김동수 경남혈액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